

## 오키나와의 아시아 국제물류 허브 구상

- ANA는 오키나와 나하공항에서 아시아 주요도시를 연결시키는 물류망을 구축, 야마토운수와 제휴하여 일본의 식품 및 부품 등 익일 해외 택배 서비스를 시작
- 오키나와를 국제물류거점으로 구축하면서 수출 증대 및 고용 창출 등 경제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인천공항과의 물류연계 등 협력이 기대되고 있음

### □ 물류 분야의 구세주, 익일 택배 서비스 개시

- 전일본공수(ANA)는 2007년에 오키나와현 나하시\*와 화물허브 구상에 합의, 약 78억 엔을 투자하여 2009년 10월부터 오키나와를 아시아 국제물류 허브거점으로 활용
  - 당초에는 전자부품, 패션의류, 의료기기 등 긴급을 요하는 하물을 고속 수송\*\*하는 인프라로서 구축
    - \* 나하공항은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야간에도 통관 절차를 진행
    - \*\*심야 시간대를 활용하여 야간에 생산된 부품 등을 익일 해외 거점으로 수송
  - 신속한 화물 수송을 위해 목적지에 따라 개별 컨테이너에 싣기 때문에 거의 모든 컨테이너는 나하공항에서 즉시 다른 비행기로 옮겨 싣을 수 있음
-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화물수송 단가가 하락하여 나하공항은 계속 적자를 기록
  -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ANA는 택배 전문기업인 야마토운수와 제휴하여 국제 쿨(cool) 택배\*로 익일 배송서비스를 시작
    - \* 쿨 택배는 해산물, 야채, 냉동식품 등 특별한 품질관리를 요하는 식품 배송에 특화된 서비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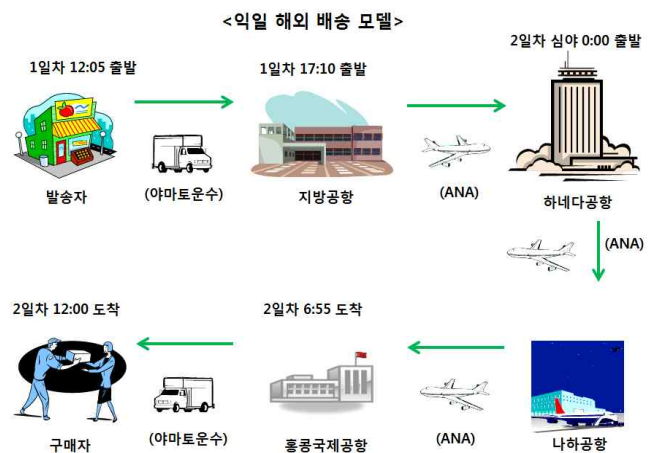
### □ ANA의 아시아 물류 전략

- ANA와 야마토운수는 2012년 12월부터 홍콩의 부유층을 대상으로 와규(일본산 소고기), 과일 등 일본의 특산품을 시험적으로 배송
  - \* 일본 식품은 아시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, 특히 홍콩 부유층은 1만 엔 정도의 고급 과일도 주저하지 않고 주문하기 때문에 수요는 증가

- 인터넷 쇼핑업체인 라쿠텐(樂天)이나 야후홍콩에서 판매된 상품을 오키나와에서 주문한 다음날 현지로 배달하는 서비스를 2013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전개

- 2013년 8월에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항공화물 노선을 확대, 화물전용기(보잉 B767-300F)에 의한 수송을 강화

\* 2014년 봄에는 하노이, 자카르타, 중국 내륙지역의 노선 개설 검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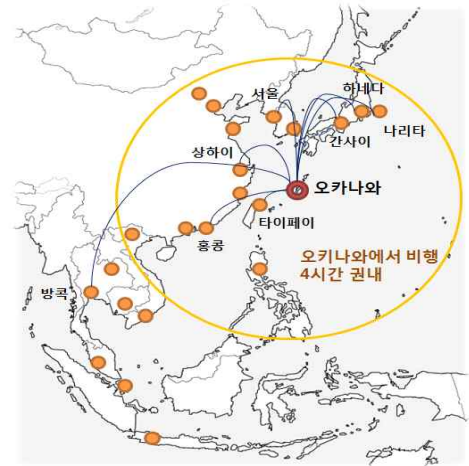
- ANA는 신속한 고객 대응을 위해 ANA HD 산하의 관련 부서를 통합하여 화물사업 전담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며, 화물전용기도 늘려 화물사업의 매출을 현재 1,500억 엔에서 3년 후에 2,000억 엔으로 확대시킬 계획
- 하지만 독일의 도이체포스트 DHL, 미국의 페덱스(FedEx)가 아시아지역의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일본 공항에 진출하는 등 항공화물분야의 전문회사끼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
- ANA는 화물을 취급하는 전문 인력을 나하공항에 배치하여 식품을 옮길 때 충격을 최소화함으로써 고객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
- 향후 해외에서 정밀기계 등 수리를 요하는 제품을 가져와 보세 상태로 수리하여 다시 해외로 반송하는 ‘수리 센터’로서의 공항 이용 등 다양한 서비스로 진화될 것으로 예상

## □ 오키나와의 경제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

- 오키나와현은 이전부터 국제물류거점으로서 산업진흥정책에 주력하여, 2012년 4월 나하시와 우루마시에 국제물류특구를 설치
- 법인세가 20%로 인하되는 세제우대제도와 보조금을 도입, 특구 내에 물류센터를 신설하여 저렴하게 임대함으로써 물류센터 및 부품창고 거점을 유치
  - \* 화물전용기 착륙요금과 시설이용료를 6분의 1로 감면
- 오키나와에서 배송되는 화물이나 부품 재고 등이 증가하면 ANA의 사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동시에 오키나와의 특산품인 돼지고기나 버섯 등의 해외 수

출도 증가되어 경제적 효과가 기대

- 물류센터에는 야마토운수가 입주, 도시바의 자회사인 도시바자동기기시스템서비스가 고객으로서 이용계약을 체결
- 대형 전세기에 의한 운송비용 삭감으로 오키나와 물류허브에서 약 70%를 차지하는 기계부품·전자부품의 수송량은 더욱 증가할 전망
- 4시간 이내에 아시아 주요도시로 배송할 수 있는 장점을 활용, 대만의 전자부품이 오키나와를 경유해서 한국으로 배달되는 ‘아시아 간 수송’도 전체의 20% 정도 차지
- 공항의 물류 허브화 및 확장에 따라 2011년에는 663명을 고용하였고, 향후 10년간 5,000여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



## □ 시사점

- 식품 등 1차 산업품의 아시아 판매가 확대되어 아베노믹스의 농업재생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될 가능성도 적지 않음
- 일본에서 인기가 많은 송이버섯이나 간장게장 등도 익일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류 식품의 수출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음
- ANA는 인천공항을 활용하여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물류망을 구축하고 있으므로 향후 수송 분야에서 한일간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
- 한국은 익일 택배나 당일 택배서비스에 대한 강점이 있으므로 일본 항공사와 연계하여 택배 서비스를 확산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- 인천공항은 아시아 허브 공항전략으로 인프라 구축과 노선을 확대해 왔기 때문에 국제물류 분야에서 일본보다 비교우위가 있으므로 한일이 협력하게 되면 국제물류 거점으로서 새로운 시장 창출도 가능할 것임

## <참고자료>

주간동양경제(2013.9.28.), 닛케이신문(2013.8.24.), Bloomberg(2013.7.25.), Sankei Biz(2013.7.18.)